

제 10 회

儒學大學

순정놀이

- 일시 : 2019년 11월 2일 토요일 오전 8시
- 장소 : 수원화성(창룡문 - 장안문 - 화서문 - 수원행궁 - 서장대 - 팔달문)

주최 : 성균관대학교 / 유학대학 / 養賢齋

순성놀이와 수원화성

봄과 여름이면 한양사람들은 짝을 지어 성 둘레를 한 바퀴 돌면서 성 안팎의 경치를 구경했는데, 이를 순성놀이라고 불렀다. 먼 곳에서 상경하는 사람들에게 한양도성은 반가움의 상징이기도 하였다.

특히 과거시험을 보러 상경하는 선비들의 경우, 저 성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밤낮으로 책을 읽었으니 한양도성의 의미가 남다른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과거 보러 온 선비들 중에는 한양도성을 한 바퀴 돌며 급제를 비는 경우도 많았다고 한다. 성곽을 한 바퀴 도는 데에는 하루해가 걸렸다고 전해진다. 정조 때 학자인 유득공은 <경도잡지>에서 순성놀이를 '도성을 한 바퀴 빙 돌아서 안팎의 멋진 경치를 구경하는 놀이'라고 설명하였다.

수원화성

수원화성은 조선왕조 제22대 정조대왕이 세자에 책봉되었으나 당쟁에 휘말려 왕위에 오르지 못하고 뒤주 속에서 생을 마감한 아버지 사도세자의 능침을 양주 배봉산에서 조선 최대의 명당인 수원 화산으로 천봉하고 화산 부근에 있던 읍치를 수원 팔달산 아래 지금의 위치로 옮기면서 축성되었다.

수원화성은 정조의 효심이 축성의 근본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당쟁에 의한 당파정치 근절과 강력한 왕도정치의 실현을 위한 원대한 정치적 포부가 담긴 정치구상의 중심지로 지어진 것이며 수도 남쪽의 국방요새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었다.

화성행궁

사적 제478호 화성행궁은 1789년(정조 13년) 수원 신읍치 건설 후 팔달산 동쪽 기슭에 건립되었다. 행궁(行宮)은 왕이 지방에 거동할 때 임시로 머물거나 전란(戰亂), 휴양, 능원(陵園)참배 등으로 지방에 별도의 궁궐을 마련하여 임시 거처하는 곳을 말하며 평상시에는 화성부 유수(留守)가 집무하는 내아(內衙)로도 활용하였다.

화성행궁은 576칸으로 정궁(正宮) 형태를 이루며 국내 행궁 중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한다. 그러나 일제강점기 낙남헌을 제외한 시설이 일제의 민족문화와 역사 말살 정책으로 사라졌다. 1980년대 말, 뜻있는 지역 시민들이 복원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꾸준하고 적극적인 복원운동을 펼친 결과 1996년 복원공사가 시작되어 마침내 482칸으로 1단계 복원이 완료되어 2003년 10월, 일반에게 공개되었다.

01. 팔달문(八達門)
02. 남수문(南水門)
03. 동남각루(東南角樓)
04. 동삼치(東三雉)
05. 동이포루(東二鎗樓)
06. 봉든(烽墩)
07. 동이치(東二雉)
08. 동포루(東砲樓)
09. 동일치(東一雉)
10. 동일포루(東一鎗樓)
11. 창룡문(蒼龍門)
12. 동북노대(東北弩臺)
13. 동북공심돈(東北空心墩)
14. 동장대(東將臺) - 연무대
15. 동암문(東暗門)
16. 동북포루(東北鎗樓)
17. 북암문(北暗門)
18. 동북각루(東北角樓)
19. 북수문(北水門) - 화홍문
20. 북동포루(北東砲樓)
21. 북동치(北東雉)
22. 북동적대(北東敵臺)
23. 장안문(長安門)
24. 북서적대(北西敵臺)
25. 북서포루(北西砲樓)
26. 북포루(北鎗樓)
27. 서북공심돈(西北空心墩)
28. 화서문(華西門)
29. 서북각루(西北角樓)
30. 서일치(西一雉)
31. 서포루(西砲樓)
32. 서이치(西二雉)
33. 서노대(西弩臺)
34. 서장대(西將臺)
35. 서암문(西暗門)
36. 서포루(西鎗樓)
37. 서삼치(西三雉)
38. 서남암문(西南暗門)
39. 서남각루(西南角樓)
40. 남포루(南砲樓)
41. 남치(南雉)



<http://www.suwon.go.kr>

제1회 순성놀이(2015. 5. 10)

퇴계인문관 - 와룡공원 - 혜화문 - 낙산 - 이화마을

제2회 순성놀이(2015. 10. 31)

퇴계인문관 - 말바위전망대 - 숙정문 - 백악마루 - 창의문 - 부암동

제3회 순성놀이(2016. 4. 19)

송례문 - 남산 팔각정 - 남소문터 - 장충체육관 - 광희문 - 동대문

제4회 순성놀이(2016. 11. 5)

송례문 - 배재공원 - 정동길 - 경교장 - 인왕산 순성길 - 창의문

제5회 순성놀이(2017. 5. 13)

퇴계인문관 - 와룡공원 - 혜화문 - 낙산 - 이화마을

제6회 순성놀이(2017. 11. 11)

퇴계인문관 - 말바위전망대 - 숙정문 - 백악마루 - 창의문 - 부암동

제7회 순성놀이(2018. 5. 12)

송례문 - 남산 팔각정 - 남소문터 - 장충체육관 - 광희문 - 동대문

제8회 순성놀이(2018. 11. 3)

송례문 - 배재공원 - 정동길 - 경교장 - 인왕산 순성길 - 창의문

제9회 순성놀이(2019. 5. 3)

퇴계인문관 - 와룡공원 - 혜화문 - 낙산 - 이화마을

제10회 순성놀이(2019. 11. 2)

창룡문 - 장안문 - 화서문 - 수원행궁 - 서장대 - 팔달문

제10회 순성놀이 일정(2019. 11.2)

08:00 집합(600주년 기념관 맞은편)

09:40 수원화성 성곽길 탐방

창룡문 - 장안문 - 화서문 - 화성행궁 - 서장대 - 팔달문

(11:00~11:30 무예 24기 시범 공연 관람 포함)*

12:40 점심식사

13:40 용 · 건릉 관람

16:00 해산(지시대 경유, 600주년 기념관 앞 하차)

* 무예24기 시범 공연: 정조대왕이 박제가, 이덕무, 백동수 등에게 편찬을 지시한 무예훈련교범으로써 『무예도보통지(武藝圖譜通志)』에 실린 무예를 선보이는 공연.



01 장안문(長安門)



장안문은 화성의 4대문 중 북쪽 문으로 수원화성의 정문이다. 1794년(정조 18) 2월 28일 공사를 시작하여 9월 5일 마쳤다. 장안이라는 말은 수도를 상징하는 말이자 백성들의 안녕을 의미한다. 장안문은 우진각 지붕(지붕면이 사방으로 경사지게 되어있는 형태)으로 규모가 웅장하다. 성문의 바깥에는 반달모양의 옹성을 쌓았는데 이것은 향아리를 반으로 쪼갠 것과 같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으로 성문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02 팔달문(八達門)

보물 제402호(1964. 9. 3)

팔달문은 화성의 4대문 중 남쪽 문으로 남쪽에서 수원으로 진입하는 곳에 위치하고 있다. 정조대왕과 당대 국왕들이 현릉원을 가기 위해 이곳을 통과했다고 한다. 1794년(정조 18) 2월 28일 공사를 시작하여 9월 15일에 완공하였다. 팔달문은 모든 곳으로 통한다는 '사통팔달'에서 비롯한 이름이며 축성 당시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어 보물 제402호로 지정되었다.



03 창룡문(蒼龍門)



창룡문은 화성의 4대문 중 동쪽 문으로 1795년(정조 19) 5월 8일 공사를 시작하여 10월 17일 마쳤다. 창룡은 곧 청룡으로 풍수지리상 좌청룡이며 동쪽을 의미한다. 성문을 보호하기 위한 옹성을 반달모양으로 쌓았는데 장안문, 팔달문과 달리 한쪽을 열어놓았다. 옹성 안 홍예문 좌측 석벽에는 공사를 담당하였던 사람과 책임자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04 화서문(華西門)

보물 제403호(1964.9.3)

화서문은 화성의 4대문 중 서쪽 대문이다. 1795년(정조 19) 7월 21일 공사를 시작하여 1796년(정조 20) 1월 8일 마쳤다. 화성 서쪽의 남양만과 서해안 방향으로 연결되는 통로 역할을 하였다. 원래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어 보물 제403호로 지정되었다. 편액은 초대 화성유수였던 채제공(蔡濟恭)이 썼다.



화성

용릉과 건릉

경기도 화성시 안녕동에 위치하고 있는 사적 제206호 「화성 용릉(隆陵)과 건릉(健陵)」은 추존 장조의황제(사도세자)와 헌경의황후(혜경궁) 홍씨를 모신 용릉과, 22대 정조선황제와 효의선황후 김씨를 모신 건릉이 조성되어 있는 곳으로 조선시대 왕실의 능역제도와 정조의 효심을 엿볼 수 있는 소중한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아 2009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다.



용릉의 역사

1762년(영조 38)에 장조(사도세자)가 아버지 영조의 명으로 뒤주 속에 갇혀 세상을 떠나자, 현 서울 동대문구 배봉산 아래에 묘를 조성하였다. 이후 묘의 이름은 수은묘(垂恩墓)라 하였으며, 1776년에 정조가 왕위에 오르자 장헌세자라는 존호를 올리고 묘를 원으로 격상하여 이름을 영우원(永祐園)이라 하였다. 1789년(정조 13)에 원을 현재의 화산으로 옮기면서 현릉원(顯隆園)이라 하였다. 1815년(순조 15)에 헌경의황후(혜경궁) 홍씨가 세상을 떠나자 이듬해인 1816년에 현릉원에 합장으로 원을 조성하였다. 그 후 대한제국 선포 후 1899년(광무 3)년에 사도세자가 추존되자 능으로 격상되어 용릉이라 하였다.

건릉의 역사

1800년(정조 24)에 정조가 세상을 떠나자 아버지 장조의 현릉원(용릉) 동쪽 언덕에 능을 조성하였다. 그러나 순조가 왕위에 오른 후 건릉 불길론이 있었고, 1821년(순조 21)에 효의선황후 김씨가 세상을 떠나자 건릉 천장이 결정되었다. 이후 현릉원 서쪽 언덕으로 능자리가 결정되면서 합장릉의 형태로 능을 조성하였다.



사도세자 이야기

사도세자는 영조와 영빈 이씨의 아들로 1735년(영조 11)에 태어나 1736년(영조 12)에 왕세자로 책봉되었다. 어려서부터 매우 총명하여 3세가 되었을 때 이미 『효경』을 외울 정도였으며, 수시로 글을 쓰고 시를 지어 대신들에게 나눠주기도 하였다. 다양한 방면에서 왕세자로서의 뛰어난 면모를 갖춰 부왕인 영조의 기대는 매우 컸다. 그러나 1749년(영조 25)에 영조의 명으로 대리청정을 시작하자, 나경언 등 그를 경계하는 노론 벽파 대신들이 왕세자를 모함하여 영조와 왕세자 간의 갈등이 비롯되었다.

『영조실록』 1762년(영조 38) 5월 13일의 기사에는 아버지인 영조가 왕세자를 뒤주에 가두어 죽이게 되는 비극의 시작이 다음과 같이 자세히 묘사되어 있다. 나경언의 고변 후로 임금은 왕세자를 폐하기로 결심하였다. 임금은 창덕궁에 나아가 세자에게 휘령전(정성왕후의 혼전)에 예를 행하도록 하였다. 임금이 행례를 마치고, 세자가 뜰 가운데서 사배례를 마치자, 궁성문을 굳게 막고 사람의 출입을 금한 후 세자에게 명하여 땅에 엎드려 관(冠)을 벗게 하고, 맨발로 머리를 땅에 조아리게 하고 이어서 차마 들을 수 없는 전교를 내려 자결할 것을 재촉하니, 왕세자의 조아린 이마에서 피가 나왔다.

세손(정조)이 들어와 관과 포를 벗고 왕세자의 뒤에 엎드리니, 임금이 안아다가 시강원으로 보내고 다시는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고 명하였다. 임금이 칼을 들고 연달아 전교를 내려 왕세자의 자결을 재촉하니, 왕세자가 자결하고자 하였는데 여러 신하들이 말렸다. 임금은 이어서 폐하여 서인을 삼는다는 명을 내렸다. 군병을 시켜 신하들을 내쫓게 하였고, 마지막까지 남아 있던 한림 임덕제마저 강제로 자리를 떠나게 되었다. 왕세자는 임덕제의 옷자락을 붙잡고 곡하면서 따라 나오며 말하기를, “너 역시 나가버리면 나는 장차 누구를 의지하란 말이냐?” 하고, 전문에서 나와 춘방의 여러 관원에게 어떻게 해야 좋은가를 물었다.

왕세자가 곡하면서 다시 들어가 땅에 엎드려 애걸하며 개과천선하기를 청하였으나 임금의 전교는 더욱 엄해지고 드디어 왕세자를 깊이 가두라고 명하였는데, 세손이 황급히 들어왔다. 임금이 왕세자빈, 세손 및 여러 왕손을 좌의정 홍봉한의 집으로 보내라고 명하였는데, 이때에 밤이 이미 반이 지났었다. 결국 뒤주에 가둔지 8일만에 세상을 떠났다. 영조는 자신의 행동을 곧 후회하고, 애도하는 뜻에서 ‘사도’라는 시호를 내렸다. 그 후 1776년에 정조가 왕위에 오른 후 장헌세자라는 존호를 올렸으며, 1899년(광무 3)에는 왕으로 추존되어 묘호를 장종이라 하였다가 곧 황제로 추존되어 장조의 황제라 하였다.



성곽길 주변 명소들

표적인 성곽길 주변 명소로는 행궁동 카페 및 음식점, 행궁아해꿈누리, 수원 화성박물관, 수원박물관, 수원광고박물관, 수원월드컵경기장 축구박물관, 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 해우재, 근대문화공관 수원 구 부국원, 그리고 수원남문시장 등이 있다.



수원화성박물관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의 중심부에 자리 잡아 접근성이 용이하고 모형과 관련 유물의 전시를 통해 수원화성 축성에 대한 전반을 이해할 수 있게 건립되었다. 상설 전시공간으로 수원화성의 축성과정과 도시발전을 알려주는 화성축성실과 수원화성 축성에 참여한 인물과 정조의 8일간의 행차, 더불어 수원화성에 주둔했던 장용영의 모습을 보여주는 화성문화실이 있다.



수원박물관

수원은 예로부터 팔달산 고인돌, 여기서산 유적 등 고대의 역사문화와 조선 후기 성곽문화의 꽃인 세계문화유산 화성, 그리고 근·현대에 이르는 많은 중요한 문화재가 삶에 깃든 도시이다. 수원박물관은 수원의 유구한 역사와 문화를 다양하게 보여주는 '수원역사박물관'과 한국서예사의 흐름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최초로 건립한 '한국서예박물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수원박물관은 수원시민과 국내외 관광객들이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역사와 문화의 체험을 즐기기를 바라며 역사와 문화를 풍부하게 만드는 중심적 역할을 해나가고 있다.

지지대 고개

수원시에서 서울 방향으로 의왕시와의 경계지점에 위치한 고개이다. 예전에는 사근현(沙近峴)이라고 불렸으며 『여지대전도』, 『해동지도』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팔도군현지도』에서는 '사근현' 대신에 '미륵당(彌勒堂)'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미륵당은 지지대 고개 정상 부근에 있었다고 한다. 『화성지』에 지지대 고개 이름의 유래가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원래는 사근현이었는데 정조가 '미륵현' 그 후에 다시 '지지현(遲遲峴)'으로 고쳤다고 기록하고 있다. '지지'라고 한 것은 사도세자 능을 참배하고 돌아갈 때 사모하는 마음이 간절하여 이곳에서 한참 지체하였던 데서 비롯되었다고 한다. 정조는 이곳에 장승과 표석을 세웠고, 1807년(순조 7)에 지지대 서쪽에 지지대비와 비각을 건립하였다. 이 비는 경기도 유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다.



수원 화성 과 용 · 건릉 을 아껴주세요

화성행궁과 용 · 건릉은 각각 사적 제478호, 제206호로 우리 조성들의 얼이 담긴 소중한 문화유산입니다. 팔달문에서 남수문까지 이어지는 수원화성 성곽길은 무수한 문화 유적들과 팔달산의 수려한 풍광 등을 체험할 수 있는 구간입니다. 후손들에게 길이 물려주어야 할 수원화성 문화유적이 온전하게 보존될 수 있도록 문화재는 적당한 거리를 두고 관람하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안내문

안전을 위해 편안한 복장과 운동화를 준비해주세요. 화성행궁 순성길은 형형색색의 암벽들을 마주할 수 있는 아름다운 성곽길이지만 경사가 심한 구간들이 있습니다. 안전사고에 항상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순성놀이 행사는 성균관대학교 유학대학과 양현재의 이름을 걸고 진행되는 만큼 행사 진행 중에 개별 행동은 삼가 주시고 진행요원들의 안내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 비상연락처 |

TA_고윤숙 010-2831-1899, 김월희 010-7279-5513, 제갈건 010-9697-1224

| 행사총괄 |

유학대학 학장 및 양현재 전재_신정근

| 기획 및 편집총괄 |

양현재 재감_강교회

| 홍보 |

유학대학 행정실_이준호, 양현재 TA_고윤숙, 김월희, 제갈건

| 자료제작 |

양현재 TA_고윤숙, 김월희, 제갈건

| 표지 붓글씨 |

김진희

성균관대학교 / 유학대학 / 養賢齋

